

광양시, 공모 시상사업 역대 최고 달성

76개 사업 선정돼 1181억 원 확보 목표 초과 달성 전년 실적 대비 81억 원 상향 확보·9개 부문 수상

광양시는 중앙부처·전라남도 등 외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시상사업에서 9월까지 76개 사업이 선정돼 1,181억 원을 확보해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

113억 원, 올해 목표액 1,100억 원 대비 81억 원이 상향 확보된 것이다. 광양시의 공모·시상사업 발굴 규모는 총 180개 사업 4,177억 원이며, 이중 76건(1,181억 원)이 선정되었다. 75건(1,829억 원)은 공모 심사 중이거나 향후 준비 중으로 지속관리와 사

전 준비강화로 마지막 4분기 선정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선정 공모사업으로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493억 원) △2020 상반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231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85억 원)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28억 원) 등 총 67개 사업이 선정돼 1,166억 원을 확보했다. 시상사업으로는 △재해예방 추진실태 점검(10억 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2억 원) △재해위험 정

비사업 우수사례 우수상(1억 원)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장려상(1억 원) 등 총 9개 부문에서 15억 원을 확보하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 중앙부처·전라남도 등의 사업추진 방식이 코로나19 대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심의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시는 공모·시상사업 대응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 개최 등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고흥군,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수여

주제영상 상영·유공자 표창패 수여 등 진행

고흥군은 최근 고흥군청 팔영산홀에서 2020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 양성평등 유공 군민 표창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여식은 코로나 19로 취소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대신해 수상자와 여성단체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패 수여, 대화의 시간 등으로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고흥군은 최근 고흥군청 팔영산홀에서 2020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 양성평등 유공 군민 표창패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여식은 코로나 19로 취소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대신해 수상자와 여성단체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패 수여, 대화의 시간 등으로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수상자로는 한국부인회 황지영, 소비자교육중앙회 김혜경, 대한적십자사 박승자 한국걸스카우트 최영란, 한국소비자연합 장경이, 고흥생각주부 모임 김금순, 한국생활개선회 송정희, 새마을부녀회 신이숙, 여성자원봉사

회 장갑순, 자유총연맹여성회 정순래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영순 여성단체협의회장도 인사말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눔과 봉사활동 등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 여성들이 타의 모범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여성단체협의회

의 다양한 지역사랑 실천에 감사드리며, 여성의 행복이 가족행복이자 지역행복으로 이어진다"며 "여성 권익 증진과 지역 양성평등사회를 위하여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고 축하 인사말을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순천시의회, 댐 방류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 촉구

"이번 홍수 피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최근 열린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댐 방류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오행숙 의원(사진)은 "수자원공사는 지난 8월초 집중호우가 예상됐음에도 예년보다 높은 댐 수위를 유지하다가 8월 7-8

일 사이 많은 비가 내리자 초당 1800톤에 달하는 물을 급작스럽게 방류해 섬진강 하류지역의 대규모 홍수 피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도 매년 댐 수위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 댐 방류량 조절 등 홍수 예방 대책을 주문하지 않아, 이번 홍수 피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 감사원은 침수피해에 책임 있는 관계기관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것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방류량 조절 실패 등 댐 운영 관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침수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행정안전부는 법정부처의 피해 보상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적극 지원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보성군, 18일까지 불법어업 특별단속

특량만권역 보성·장흥·고흥·강진 4개 군 합동 교차단속



보성군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16일부터 3일간은 보성군을 비롯해 장흥·고흥·강진 등 특량만권역 4개 군, 전남도가 합동 교차단속을 실시하며, 전남도 어업지도선 2척을 포함해 총 6척의 지도선과 사범공무원 30여 명이 투입된다. 이번 특별 단속 기간에는 ▲무면허 양식 시설 설치, ▲해상 불법 채묘시설 및 면적초과 등 양식어장 채묘시설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불법어업 행위 적발시 수산관계 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단행할 예정이다.

하·무허가 어업행위, ▲무면허 양식 시설 설치, ▲해상 불법 채묘시설 및 면적초과 등 양식어장 채묘시설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불법어업 행위 적발시 수산관계 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단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어업 단속 사전 예고 등을 통해 자율적인 준법의식이 높아지고, 조밀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여수시, '이동 멈춤' 운동 나서

'귀성·역귀성 자제·비대면 영상통화 등 활용' 당부

"이번 추석이 코로나가 확산될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귀성과 역귀성을 자제하는 이동 멈춤 운동에 시민 여러분이 동참해 주십시오" 여수시가 최근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올 추석 명절 고향·친지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8·15연휴 광화문집회와 종교시설을 통해 코로나19가 급격히 재확산 된 만

큼 이번 추석명절에 인구의 대이동으로 코로나 확산에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비한 조치다. 여수시는 지역별 향우회와 관내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에 공문을 보내 귀성·역귀성을 자제하고 '이동멈춤'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시 홈페이지와 여수이야기 등 SNS를 통해 홍보하고 BIS(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와 전광판 등을 통해 송

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읍·면·동에서는 이·통장과 자생단체가 동참해 타지역 거주 가족이나 친지의 상호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적극 알리고, 경로당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귀성 자제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 또한 독거노인 돌봄 시 가족과 영상통화로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정성운 기자

순천소방, 추석 연휴 화재 안전대책 추진

내달 5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비대면 화재안전컨설팅 운영

순천소방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10월 5일까지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예방 활동과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인과 접촉을 최소화해 비대면으로 자율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터미널, 역 등 다중이용시설 54개소를 대상으로 비대면 화재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소방특별조사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해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위험요소를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중 휴무하는 공간이나 창고 등 산업시설은 화재안전을 당부하고 소방시설 정상작동, 불필요한 전원 차단 등 화재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컨설팅도 이뤄질 예정이다.

관계인이 소방시설 전원 차단, 비상구 폐쇄?훼손 등 화재 위험요인을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소방서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소방서에서는 자율점검 결과를 검토해 관계인에게 원인 분석과 관리방법 등을 지도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접촉을 최소화하고 화재안전 홍보활동도 집중 추진한다. 언론 매체와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화재예방 대국민 행동요령 등을 알리고 특히 연휴 기간 많이 발생하는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추석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도 진행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산구

내일이 행복한 광산
매력·활력·물결

코로나19 임박 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의심2지구 상가 상인회

방역 환자 감시 시스템

전환경마스크